이름을 지어주세요(알림 참조)

2024. 3 ~ 4월호

안동환경운동연합

산은 힘들어도 늘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평화로운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참가자 이* 님 소감)

240427 생태탐방 1 의성 금성산 일대

2024. 3. 8
석포에서 워크샵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들은
노동자의 부고 소식.
얼마나 놀랐는지요.

반복되는 사고가
이제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죽음의 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장례 지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에서 떠나라.

240312 죽음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장례 캠페인 기자회견

발행일 2024. 05. 01
발행처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편집위원** 조석옥 김아름 서옥림 이재각
안동시 안기천로 45 1층 054-843-9333 andong@kfem.or.kr
홈페이지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안동환경운동연합' 검색

2. 이 달의 활동
3. 오늘 퇴근캠페인 시작합니다, 환경문답
4. 마음에 남는 책 하나, 쉼터, 알림, 후원현황

▶ 이 달의 활동(2024년 3월 ~ 4월)

3/4 제련소 세미나 준비 회의 13:30 온라인
416 10주기 행진 14:30 웅부공원 평화의소녀상 앞
3/6 집행위원회의 18:30 사무실
3/7~8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주민, 노동자 건강피해 해결을 위한 워크숍(기자회견) 11:00 안동, 석포 일대

3/7

3/7

3/8

3/11 죽음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장례캠페인 기자회견 11:00 광화문
3/20 제73기 (주)영풍 정기주주총회 관련
'노동자 살인기업, 낙동강과 백두대간 환경오염기업,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라' 기자회견 08:00 영풍빌딩 별관 앞

3/11

4/3

4/11

3/21 제련소 세미나 준비 회의 14:00 온라인
3/25 편집위원회의 15:00 오감카페
3/29 녹조에어로졸 조사 세미나 16:00 부경대
4/2 환경보건월례회의 10:00 온라인
4/3 집행위원회의 18:30 사무실
4/11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장항대책위 방문 11:00 세종, 서천
4/15 풍산 LNG 대책위 방문 11:00 사무실
420안동공투단 선포식 및 기자회견 14:00 안동시청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안동 추모행사 11:00 안동 문화의 거리

4/16

4/19

4/20

4/19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주민, 노동자 건강피해 해결을 위한 2차 워크숍 14:00 서울 로그아웃
4/20 420 삼척 집중행동 함께 끄자! 삼척 석탄! 14:30 삼척 블루파워 본사 앞
4/22 편집위원회의 11:00 사무실
4/25 안동남부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 집회 10:30 안동시청 앞
낙동강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특강 13:30 대구환경운동연합
4/27 2024 생태탐방 1 09:30 의성 금성산 일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안동 퇴근시간 캠페인 매주 목 17:00 신시장 네거리(4월 25일 102회차)
* 안동mbc라디오 18:10 김수동의 지락실(~4/4)

▶ 오늘 퇴근캠페인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 장마철에 캠페인 참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결합을 못했어요. 단톡방에서 회원님들이 꾸준히 캠페인 이어가 주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시간 나는 날을 벼르고 벼르다 3월 28일, 아버지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퇴근 캠페인 하게 되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큰 배낭을 멘 아저씨가 "신시장이 어디냐" 물으시더라고요. (여행객이시겠지요?) 방향을 알려드리니 감사인사 하시면서, "그런데 아가씨 뭘 들고 있어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하고 피켓 문구를 읽으시더라고요. "누구 뭐 보는 사람 있나!" 하시길래 "방금 선생님이 봐주셨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4월 19일에 오염수 5차 방류가 진행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첫 방류가 있던 작년 여름, 온 나라가 분노하고 들썩였는데 이제는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 그 소식을 알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가장 많은 경북에서 핵과 오염수의 위험성 알리고, 온생명 위한 투쟁 작게나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지속성 갖고 캠페인 이어가고 단톡방 통해 기사를 종종 공유해주시니 저도 문제의식 잊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또 캠페인에 손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솔잎 회원)

▶ 환경문답

'그린뉴딜' 이대로 괜찮고 가능한가

1. 개념[1)]

1) '그린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2) '그린뉴딜'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구조 재정립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며,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상황 개선 및 복지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3) 한국의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 정책에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 핵심적 문제와 대안[2)]

문제1) 고용, 사회정의, 에너지 등의 문제를 생산의 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점이다. 이는 생산과 부의 증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생산을 지속하여 결국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또한 행복의 본질이 더 많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게 한다. 즉 '그린뉴딜'은 경제성장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2) 생산의 증가는 곧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수반한다. 어떤 형태이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대안에너지도 발전이 확장되는 단계마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유해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 발전에는 판넬과 축전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광물의 대량 채굴과 정련 및 수명이 다한 독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 풍력 발전도 방사성 원료를 채굴하고 전기 생성 과정에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생태계를 훼손하고 날개 폐기물 처리도 문제이다. 댐에 의한 수력 발전 역시 육지와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지를 잠식하여 지역공동체도 파괴된다.

대안) 인류의 생존과 지속은 생산의 증가와 부의 축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적정기술로 필요한 만큼 생산하여 서로 나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녹색문화의 건설에 달려 있다. 녹색문화는 경제성장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 총량을 줄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편집부)

---

1)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국, 「에너지진짜뉴스」, 2021, 134~35쪽 참조.

2) 돈 피츠, 「그린뉴딜, 이대로 괜찮을까」, 녹색평론 제184호, 2023 겨울호, 136쪽 참조.

▶ 마음에 남는 책 하나

기후위기인간 : 나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구희 저/이유진 감수 알에이치코리아

마음에 남는 글귀
"기후위기 시대,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내가 살던 그대로 사느냐, 알게 된 만큼 변화하며 사느냐, 방향을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내 자신이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후위기인간》은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책은 귀여운 그림과 위트 있는 멘트를 통해 비거니즘, 탄소 중립, 공장식 축산 등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쉽게 다가가게 하며, '배달 대신 다회용기에 포장해오기', '자연식물식 챌린지 도전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여 나도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은 변화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을 품거나 사람에게도 회를 움직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김아름 회원님의 추천입니다. 다음 달 추천은 허승규 회원님께서 해주십니다.

▶ 쉼터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꽃가루처럼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아름다운 봄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다.

금방울처럼 둥글고 큰 고양이의 눈에
격렬한 봄의 불꽃이 흐르고 있다.

조용히 다문 고양이의 입술에
따뜻한 봄의 졸음이 어른거린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고 있다.

그림: 김은영 회원 作

▶ 알림

1.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퇴근시간캠페인
매주 목 17:00~18:00 신시장네거리(구.농고네거리)
캠페인 참여하실 회원분께서는 사무국장(010.2864.0215)에게 연락주세요.

2. 본 소식지는 회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소식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아울러 회원님들의 소식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실어드립니다. 사무국장(010.2864.0215)에게 연락주세요.

▶후원현황(2024년 2월 16일 ~ 4월 15일)

강란구 강민수 강병규 강병두 강상우 강석주 강수완 강신국 강주영 강준용 강철원 고은경 공문규 공정옥 권기상 권기춘 권기환 권명희 권미정
권영창 권오형 권용수 권준익 권해숙 권현주 권희경 금시훈 김가형 김금열 김동원 김동학 김명자 김명환 김민식 김보혜 김봉우 김분택 김상태
김새롬 김수동 김수일 김숙이 김순중 김승균 김시원 김시현 김아름 김연자 김연혁 김영훈 김옥희 김원열 김유진 김윤상 김윤진 김은복 김은숙
김은영 김은혜 김정우 김정현 김정희 김종규 김종육 김주년 김창균 김철수 김춘섭 김헌주 김헌택 김혁배 김형민 김혜민 김혜자 김희철 남영신
노지민 류길하 류시대 류춘우 문상필 문수미 박경순 박경화 박명남 박수성 박순우 박욱원 박종순 박찬승 박평헌 박혜민 배용한 배주현 배현주
백설아 변성윤 서대환 서옥림 서정림 서준교 손동정 손선영 손중열 신공주 신기선 신성일 신지은 신현순 신효철 심유성 안동훈 안솔잎 양정인
엄영애 엄지원 여명미 옥현정 왕용원 윤동희 우지현 이경란 이경원 이경자 이광섭 이규중 이대홍 이동이 이민호 이설우 이성로 이수동 이승철
이영목 이우원 이윤화 이재각 이정희 이종원 이 창 이철진 이태식 이해선 이형철 이희오 임경지 임덕자 임미주 임영숙 임우선 임정동 임혁재
장경자 장윤석 장인완 장재모 장현국 장효정 전교탁 전영모 전재헌 정민지 정복순 정숙자 정신영 정연주 정찬수 정철환 조명호 조병후 조석옥
조영준 조지용 조현석 차준섭 천문기 천수빈 최락선 최민교 최병우 최상헌 최수환 최영신 최용환 최유정 최정은 최종승 최형석 추장민 피정아
하충현 한경희 한철희 한혜원 허승규 홍수만 황진용 여디디야 ㈜히어로 골대교회공동체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누락되신 회원은 연락 바랍니다.

▶ 김은현, 김정년, 김휘연, 엄영애, 이영탁, 조주리 님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가입)
▶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후원계좌 농협 351-1218-3671-93 사단법인안동환경운동연합